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선거사범 입건

3명중 1명꼴 수사선상 올라 당선무효시 내년4월 재보선 도내 18명 기소 30명 수사

4·13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검찰이 당선자 중 불법 선거사범으로 104명을 입건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수 당선자가 중도 탈락의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 이중 98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4·13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1451명 가운데 당선자 104명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을 치러져 여소야 대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1451명을 입건해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1038명이 입건된 19대 총선보다 32.4% 증가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

론조작사범 114명(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341명과 비교하면 77.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난무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일부 지역구는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불법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14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선거사범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안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 과정을 챙겨 발람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민첩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일선 검찰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사유 완성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용주기자

고창서 빈집털이 30대 검거

고창경찰서는 14일 고창군에서 빈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에 고창군 고창읍 B(70)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목걸이,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희삿돈 빼돌린 경리직원 향소심사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희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향소심사에서 징역 2년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사에 횡령금 3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건설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회사 계좌로 입금된 3억2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 질러

고창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고창군 아산면 자신의 집 안방과 거실에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 1동이 전소돼 45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팬목항을 찾아 세월호 2주기를 앞둔 14일 조희연 서울시교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남 진도 팬목항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풍수해 예방투자비 4.3배 ↑ 인명피해 6배 ↓

최근 10년 사이 여름철 재해예방투자비를 4.3배 늘렸더니 인명 피해가 6배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1662억원이던 재해예방투자비가 지난해 7124억원으로 늘었다.

10년새 4.29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은 62명에서 제로(0)가 됐다.

재산피해 규모도 지난해 142억원으로 10년 전의 1조8482억원에 비해 눈

곳에 6421억원을 투입했다.

시설별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218곳에 가장 많은 2655억원을 투자했다.

뒤이어 소화전(504곳·2115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194곳·747억원), 우수저류시설(39곳·718억원), 재해위험 저수지(82곳·186억원) 순이다.

특히 2월만에 90% 이상 재해복구 공정을 조기발주 하고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하는 '시기별 목표제'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2월 말까지 1037곳중 952곳(91.8%) 발주를 끝내 목표치인 90% 이상을 달성했다. 3월말 기준으로 968곳(93.3%)이 발주를 마쳤다.

70명 증가했다.

2월 말까지 1037곳중 952곳(91.8%) 발주를 끝내 목표치인 90% 이상을 달성했다. 3월말 기준으로 968곳(93.3%)이 발주를 마쳤다.

전주시립도서관,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내 유치원생 대상

전주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색적인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에서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완산도서관 본관 2층에 마련된 다문화화자료실은 영어와 일본어, 불교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이용자들이 세계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자료실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생선감자들이 재미있고 이색적인 다문화각국의 문화와 전래동화와 전래놀이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매 시간 체험형

활동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문화 관련 자료와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는 완산도서관을 비롯해 전주시 10개 공공도서관은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고 있다.

평화도서관 일반 도서열람실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써 어린이들이 가상동화구연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유아자료실, 수유실, 어린이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신도서관은 지난해 하루 평균 1785명이 다녀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학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평균 자료대출 권수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건지도서관도 사립과 생애, 인문학이 하나의 숲을 이루는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됐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장애인 인권보호 나서

시설별로 5명 구성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호남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와 외부단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각 시설 별로 변호사와 공공후견인,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및 이용 장애인 보호자 등 5명 내외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와 외부 단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침과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인권지킴이단원들이 시설 이용자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최은광 과장은 '인권지킴이단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해 강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올해를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추진 원년으로 삼고 지난 2월 조직개편 시 인권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증진 사책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또, 인권 존중문화 조성 및 사회적 약자 관련시설 특화화 사전·사후관리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호남 권역을 대표해 전주에서 교육이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전주가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500여명의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호남권 교육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전주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영재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권역1호 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59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